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8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여름되시길



요즘 미국 교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잔뜩 들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와 준다는 내용입니다. 곧 교회 성장을 위한 장단기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머지않아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방법론에 깊이 의존하여 교회 성장을 꾀해보고자 애를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해나가는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지혜와 조직과 경영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완전히 대치해버리는 불행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시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부강했고 정치적으로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저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은 파멸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 말씀 앞에 무릎꿇어야 하겠습니다. 분주해지기 쉬운 이 여름에 우리 총현의 모든 가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남이 없이,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걸음씩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도록 맡겨드리십시다.

1999년 8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8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요한복음 서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공관복음)을 보충하는 한편 이방인들, 특히 헬라문화권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서술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떡” “영생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요 1:7)는 말로 시작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는 말로 맺고 있는데 98회에 걸쳐서 ‘믿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만 봐도 사도 요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요한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요 1:14)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다(3:15, 16:10).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요 6:35, 36).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으로, 또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요 10:11)로 소개한다.

요한복음은 요한서신(요한1. 2. 3서)과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의 가까이에서 본 그리스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1:1, 14), 인자(2:2, 12), 거룩한 선생(3:2), 영혼을 구원하시는 자(4:13, 14), 위대한 의사(5:8, 9), 생명의 떡(6:48), 생명수(7:37), 세상의 빛(9:11), 선한 목자(10:15), 생명의 주관자(11:25, 43), 위로자(14:4, 5), 참 포도나무(15:1), 증보자(17:20-23), 고난 당하는 자(18:11), 사망을 이기신 자(20:11-17)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내용 흐름

서 론 /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1:1-18)

본 론 / 하나님 아들의 사역(1:19-17:26)

1. 하나님 아들의 출현 / 1:19-4:54

- 1) 유다에서의 사역(1:19-3:36)
- 2) 사마리아에서의 사역(4:1-42)
- 3) 갈릴리에서의 사역(4:43-54)

2. 하나님 아들의 배척 / 5:1-12:50

- 1) 명절날 예루살렘에서(5:1-47)
- 2) 유월절 갈릴리에서(6:1-71)
- 3) 초막절 예루살렘에서(7:1-10:21)
- 4) 수전절 예루살렘에서(10:22-42)
- 5) 베다니에서(11:1-12:11)
- 6) 예루살렘에서(12:12-50)

3. 하나님 아들의 교훈 / 13:1-17:26

- 1) 다락방에서(13:1-14:31)
- 2) 동산에서(15:1-17:26)

결 론 /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18:1-21:25)

멸망 가운데 버려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도 그러하거니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낙원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둠에 버려져 영 죽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구원의 장소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계 21:3).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표징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 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였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증거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스스로 증거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질문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메(신발끈)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주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마 3:13 이하와 눅 2:23 이하 참조).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희생제물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지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요한은 증거한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신령한 것을 알아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주님은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이 증거를 하시고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비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이전에 뿌리고 가꾸고 길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아마도(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또 한 사람 시몬(베드로)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41절)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주님은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또한 나다나엘에게로 가서(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45절)고 전하고 머뭇거리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 보라"고 하여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주님께 나아온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확신하며 '와 보라'고 담대히 간절하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예 수님의 첫번째 이적은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적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표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구원의 때를 혼인예식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호 2:16, 사 62:2 이하 등).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예수님께서 첫번째 이적을 혼인예식에서 홍을 돌구는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취하시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포도주는 종말적인 기쁨과 삶의 풍요를 미리 맛보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심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때를 맞이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세상을 위하여 열리는 때를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아직은 구원의 완성의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작용에 있어서는 천국의 기쁨을 현재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짐승을 팔거나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편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예배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을 내리치시며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은 주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니고데모는 공회의원(관원-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표적을 칭찬하는 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일에 매여 있을 때에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머니의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이것이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그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 광야에서 일어난 늦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 기도 제목 / ① 거듭남의 비밀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요한이 예수님과 나란히 활동했던 일종의 과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곧 그가 여전히 물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자(요 4:2 참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것을 요한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말하며 주님께 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면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전에 요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그 자리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여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서 주님은 높아지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이라 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무척 싫어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도 않았습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 하기에 당시의 모든 관습과 인종과 성을 뛰어넘어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위해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생수'라는 말을 통해서 참된 해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인의 과거, 즉 결혼의 실패와 죄악된 삶을 지적하시자 여인은 아픈 곳을 찢어 곧 화제를 돌립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어느 곳이 예배하기에 알맞은 장소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대로 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참 하나님을 제시하십니다. 이는 그녀는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때와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때 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들을 보내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관원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에 보이셨던 많은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더 많은 기적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과 기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 관원의 아들을 고쳤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관원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정확한 시간을 관심있게 물어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시각과 자신의 아들이 나온 시각이 일치함을 들었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인내와 믿음을 소유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세상적인 방법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그 연못에 누워서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가능성에만 굳어져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삶의 상황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시자 그 병자의 헛된 가능성은 깨어지고 완전히 새롭고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병, 마약과 같은 습관들, 죄악으로 물든 관계 등은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생명의 삶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38년 동안 누워 지내온 사람의 절망과, 그를 단번에 완전히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이는 옛 율법의 무력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과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옛 율법의 무력함 속에 살아가며 이 땅의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살아갈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땅에서의 가능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땅에서의 가능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지금과 같이 언제나 동일하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죽음과 생명에 대해 갈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권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됨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므로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고치시므로 나도 고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 나도 그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두 가지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행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반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사실은 예수님을 존경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모든 심판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완전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인간의 아들이로서는 그 모든 아픔을 체험하신 분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심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이기적인 계산과 우리의 한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법에 어떤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은 유대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인내로 호소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권위를 옹호하는 여러 증인들을 주장하여 내세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32, 37절), 세례 요한(33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행하신 표적들(36절), 그리고 성경과 모세가 증인들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증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는, 그들이 특이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주장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견해였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너무 거칠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친 마음과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으로,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리들의 세상적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 대한 관심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굶주림을 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에 대해 빌립도 안드레도 그들의 불신앙을 보입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셈으로, 안드레는 아무런 믿음 없는 행위로 그들의 불신앙을 보입니다. 한편 기적으로 음식을 먹은 큰 무리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줄 왕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히 무리로부터 물러나시어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을 위해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무거운 짐을 지셨지만, 제자들이 겪고 있던 그 작은 고통에도 민감히 반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말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과 참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 따를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믿음을 구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온유한 마음과 믿음이 삶 속에서 샘솟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벌기 위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육신보다 영원히 살 생명을 위한 양식에는 어떠한 지 생각해봅시다.

본문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온 이들의 그릇된 목적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만족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소욕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입니다. 구약시대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예표합니다. ‘만나’를 먹은 옛 사람들은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기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갈림길은 우리에게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51절). 이제 예수님은 이 선포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정확히 밝히시면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들을 구분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오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을 데리시고 무리들로부터 떠나십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을 때 느끼던 흥분이 주께서 하시는 질책과 도전과 책망으로 대체될 때에는 예수님의 요구들이 나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언제나 성실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 신실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질문에 열 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오리까”라고 대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결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① 늘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이 자신의 하는 일에 관해서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만큼 실망스러운 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기대를 온전히 채워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세계에 관해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런 기대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청합니다(4절). 어쩌면 오해를 받고 있는 육신의 형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5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사업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범한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과연 많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을 가난 가운데서 끌어 내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 오신 분이실까요? 예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어디로서 오시지를 아는 자가 없다”(27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참되고 세상은 또한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28절)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신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백성들이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 주시기 위해서 “생수의 강”(37-39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 만국이 소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겔 47:1-13)하셨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그 생명수가 되심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심을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수가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생수가 되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율 법에는 간음한 자가 현장에서 잡히면 중인이 먼저 간음한 자에게 손을 대고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신 13:9, 10, 17:7). 모세의 율법을 떠 받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할 목적으로 간음 중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때는 초막절이 끝난 뒤였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황해 하지 않고 잠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러선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7절)고 말씀하십니다. 다 돌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11절) 즉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어두운 죄악을 밝혀 내시는 빛이 되심을 보여 주십니다. 초막절에는 촛대에 불을 점등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등불이야말로 오실 메시야의 표상이었습니다. “빛” 이나, “떡”, “생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관련이 깊습니다. “불기둥”, “만나”,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신 메시야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의 아들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들에게 말씀하여 오신 자이시며(25절) 아브라함때부터 계신 자이셨기 때문에(58절) 세상보다 먼저 계셨고(先在)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며 살아 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공관복음 안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향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보여 주시기 위해 이 소경이 존재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3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환자를 치유하실 때 침을 사용한적은 여러 번(막 7:33, 8:23) 있지만 진흙을 사용하신 것은 본문 외에는 없습니다. 이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창 2:7).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것으로 자신이 창조주 되심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요 1:3). 실로암(보냄을 받았다)으로 간 소경은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용납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병들을 맡깁시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님의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어 수리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밝히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보지 못해 고생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는 커녕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소경이 고백하는 바였습니다. 소경은 또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신 18:15)했습니다(17절). 구약성경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일으킬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시 29:18, 42:7). 다시 말하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안식일에 행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경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뚫었어도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구원주가 되신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되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이야말로 소경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新)바리새인이 되려는 경향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너희가 바로 소경이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기 전에 ….

영안을 밝히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어떤 말을 들을 때 실감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잘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적절한 때에 말해졌는가에 따라서 전해지는 감동의 차이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군중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그들 모두가 양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간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이야말로 양떼들을 문으로 인도하여 들이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11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많은 양떼들을 노략하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잃은 소경과 같은 무리들을,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무리와 같은 무리들을 쉽고 풍성한 곳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음성을 발하실 것입니다(16절).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이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의 목자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선한 목자도 되실 것을 보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떼들을 부르시되 삯꾼과 같지 아니하고 양떼들로 꼴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주님의 양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착한 양떼들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케냐)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녀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갈등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더 이상 헛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여든 분명히 말하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는가?’ (25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37-38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이적과 기사 자체가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충분히 이해한다면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믿으면 그때에 깨달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이 믿음, 모든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특권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주 잘 알려진 일화 중 나이가가라 폭포를 건너는 줄타는 사람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줄을 타고 나이가가라 폭포를 건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 아들을 등에 업고서 줄을 타고 건너기 전에 사람들을 향해 '내가 저 끝까지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 줄타는 사람의 등에 자기 자식을 태울 뜻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들은 담대하고 힘차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좀처럼 부활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토록 이 땅의 일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일이라면 몰라도, 결국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을 그토록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 것을 보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부활신앙은 마지막 때, 저 먼 시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교리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부활을 믿을진대, 부활 신앙의 흔적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위엿 것을 구하고 찾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생명을 죽이는 사람’ . 좀 으스스하고 무섭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인과 악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나란히 놓으시면서 생명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더 심각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함부로 욕을 내뱉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영원토록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로 치부합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를 주어서 실족시키거나, 형제에게 인격을 잃어서 욕하고 증오하는 말을 내뱉는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역사 앞에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고, 마땅히 죽여야 할 신학적 명분까지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중 어느 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조과장된 이야기이겠지만, 7-80년대에 운동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자기가 속한 운동권으로부터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 운동권의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하라고 외쳤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마 23:4)이라고 비난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명분 좋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조금도 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감사의 예물로 예수님께 바친 극히 비싼 향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가 예수님 자신의 장사지냄을 예비하는 행위라고 해석하셨지만, 유다는 전적으로 다른 입장에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비싼 것을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가?’(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태도를 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6절). 나는 어떻습니까? 입술의 고백과 중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표리부동, 실행 불일치의 태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나의 고백과 생각, 행함이 일치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역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언제 움직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언제일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때에 관해 궁금해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문 후, 그야말로 떠나야 할 때가 거의 되었을 때, 야곱은 언제나 떠날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했습니다. 그때 라반의 안색이 이상해지고, 처가 식구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쌀쌀맞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떠날 전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떠나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매” 이 땅에 오셨고, 정해진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고, 때에 맞추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23절). 곧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의 돌아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셔야 할 때와 연관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하신 때에 순종하는 것을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과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위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27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급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케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볼 신은 표적으로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다(37절). 그 심령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믿음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후에도 이 믿음이 현실적인 타협으로 인해, 매우 유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층, 곧 관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출회를 당할까, 곧 자신들이 지금까지 향유해오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존경과 안정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43절)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 10:32). 바른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서 바르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나의 믿음이 현실에 매여 있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요한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 중 하나의 배신이 계속 해서 반복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1절). 결국, 이 '끝까지'의 사랑은 십자가까지 계속될 뿐 아니라, 영원토록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그 몸에 지니시는 데에까지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4-5절). 그 사랑은 제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스승의 훈계,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친히 자기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4-35절).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우리들 매일의 생활에서 깊은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해법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를 위해 이미 베풀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행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오늘은 어제 묵상한 예수님의 사랑에 이어서,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만을 품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는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13장 2절). 사단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찾습니다. 미움을 품은 마음, 질투를 품은 마음, 탐욕을 품은 마음을 찾아 미혹하여 쉽게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유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10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18절).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 유다의 영혼이야말로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다가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27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유다의 결정적인 배신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과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38절). 이러한 배신 행위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자주 저질러 집니다. 비록 영속적인 배신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무색하도록 내 욕심을 따라 달려가곤 합니다. 하루 하루를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그 사랑에 합당한 ‘신실함’을 날마다 나타내는 자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내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는 '의심'입니다. 불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든지 믿고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땅히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을 충분히 믿지 못할 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안과 근심이 파고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마와 빌립의 머리는 여전히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청 모두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 해답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1절). 우리는 사고 많은 세상에서 삽니다. 따라서 불안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재와 홍수와 교통사고와 질병과 강도와 사기가 언제 어떻게 우리들을 덮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의 근심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처소는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을 몰아냅니다.

▶ 기도 제목 / ① 근심에 묶이지 않고, 믿음의 평안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8월에도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9월 한 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서론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선지서의 왕자'라는 별칭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웅장한 시야와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은총, 그리고 최고조에 달한 메시아 예언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듯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는 39장까지의 전반부 내용과 나머지 27장에 달하는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 사이에는 부도덕한 우상숭배자들, 곧 유다와 둘러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27장은 메시아의 등장에 따른 희망과 위로가 가득합니다. 참으로 특별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것까지도 이사야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이사야서는 한 마디로 죄악의 고발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을 한 눈에 보여 주는 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1-12절까지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탁월하고도 섬세한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마 1:1), 그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마 3:16). 그는 인류를 자비와 의로 심판하실 것이며(계 19:11), 그의 통치는 평화와 화해로 상징되는 우주적인 통치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도 메시아계로 나아올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는 먼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입니다(사 42:1-4, 49:1-6, 50:4-9, 52:13-53:12).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걸쳐서 예언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웃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통치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호세아와 미가도 활동했었습니다.

내용 흐름

제1부 : 심판의 예언(1-35장)

1.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예언(1:1-12:6)
2. 다른 열국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예언(13:1-23:18)
3. 여호와와 날에 대한 예언(24:1-27:13)
4. 이스라엘 및 열국들에 대한 저주와
오실 왕에 대한 예언(28:1-35:10)

제2부 : 삽입된 중간 이야기(36-39장)

1. 앗수르로부터 구원받은 히스기야(36:1-37:38)
2.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히스기야(38:1-22)
3. 히스기야의 죄(39:1-8)

제3부 : 위로의 예언(40-66장)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40:1-48:22)
2. 메시아를 통한 구원(49:1-57:21)
3. 이스라엘의 영광스런 미래(58:1-66:24)

제 1 과

이사야(1)

감사와 사랑

찬 송 / 202장

읽을 말씀 / 1:1-12:6

공부할 말씀 / 12:1-6

먼저 읽기

이사야서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고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였고 그들의 성읍은 창기와 살인자, 우상숭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부녀자들은 부녀자대로 총체적인 타락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배신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소집하십니다(5:26-30).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영적 위기가 극에 달한 때에 무거운 심령을 품고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한 줄기 빛으로의 부르심'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루터기', 곧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로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와중에서도 이 '희망의 노래'는 면면히 이어집니다.

물론 어둠은 계속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장차 멸망할 앓수르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은 곧 수리아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11장)에 대한 꿈이 한줄기 빛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향한 '희망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

1. 1절은 그 날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11:6-9 참조하기)?

2. 그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라 말하게 될까요(1, 4절)?

3.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에차서 말하게 될 아름다운 고백은 무엇입니까(2절)?

4.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5절 상반절)?

5.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5절 하반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본문의 내용은 '감사와 자랑'으로 요약됩니다. 진노 아래 있던 자를 위로 아래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넘쳐나는 감사를 노래하면서 그 은총을 만방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된 감사와 자랑으로 인해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1.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5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들을 끄집어 냅니다. 물론,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순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

인들에게는 어제 아침, 바로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생생한 믿음의 감동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느새 낡아버린 나의 옛 신앙일기장을 아직도 뒤적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이루신 극히 아름다운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소식이 만방에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당신은 어떤 형태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2 과

이사야(2)

구원 얻을 애굽에 대한 묵상

찬 송 / 207장

읽을 말씀 / 13:1-23:18

공부할 말씀 / 19:19-22

먼저 읽기

13장부터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장들은 심판받을 나라들의 명단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상을 들추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이 명단에는 앗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스라엘,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19장, 곧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9장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대한 마땅한 심판에서 시작하여 결국이 그들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19장 1-4절은 애굽의 사회적 붕괴를, 5-10절은 경제적인 붕괴를 다룹니다. 그리고 11-15절은 애굽의 철저한 혼란상을 그립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서는 임박한 심판 넘어 애굽인들이 장차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애굽 안에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설들이 세워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교회의 보편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일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기

1. 그 날,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 열국이 회복되는 날에 애굽 땅 중앙과 변경에는 무엇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19절)?
2. 그 시설물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20절 상반절)?
3. 애굽인들이 고생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20절 하반절)?

4.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인들에게 알게 하실 때, 애굽인들이 보일 반응은 무엇입니까(21절)?

5. 애굽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22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애굽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19장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자신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은 애굽의 회복뿐 아니라, 앗수르의 회복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든지 앗수르라든지 하는 어느 특정한 나라에 대한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편-네 편 의식'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집착을 보이는 반면,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저 사람은 안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행여라도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는 사람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닫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2. 애굽인들은 구원의 날에, 여호와를 위한 증거물을 세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치실지라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괜히 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치시고, 치심으로 쓰러진 우리들을 친히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3 과

이사야(3)

폭풍우 속의 평강

찬 송 / 446장

읽을 말씀 / 24:1-27:13

공부할 말씀 / 26:1-13

먼저 읽기

사람들은 보통 24장 1절부터 27장 13절까지를 보통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는 먼저 온 땅에 폭풍우와 같은 재난이 임할 것입니다(24:1-13). 그러나 이 재난은 완전한 파멸을 위한 재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재난입니다(24:14-23). 따라서 이사야는 구원에 대한 찬양, 만민을 위한 은혜에 대한 찬양,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사망과 성도의 부활을 내다봅니다(26장). 폭풍우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소망과 깊은 내적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기

1. 구원으로 세워진 성과 확이 있는 견고한 성읍의 문으로 들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2절)?
2.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3절)?
3. 의인들은 어디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사모합니까(8절)?
4.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데도 악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10절)?

5. 택함받은 자들이 끝내 주님만 의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13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나라의 특징을 신(信: 믿음)을 지키는 나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실 자의 특징을 심지가 견고한 자, 곧 주를 의뢰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이 두가지 특징은 같은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대의 국제 정세를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하는 나라나,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를 살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개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만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최근, 나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사람과 환경에 매여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의인들이 주님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져올 영광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리고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공식적
으로 기념되고 선포되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의인
들은 '다른 주들이 그들을 관할하는 순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주권자의 통치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심한 순간)에도 주님의 이
름을 부르며 그 날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나는 과연 그 날을 간절
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당하는 환
난에 지쳐하거나, 나의 세계(내가 인정받고 높이와 존경을 받는 자
리)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제 4 과

이사야(4)

헛된 도움

찬 송 / 438장

읽을말씀 / 28:1-35:10

공부할 말씀 / 30:1-7

먼저 읽기

백성들의 영적인 유약성을 잘 알고 있던 이사야는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하여 거듭해서 경고하면서 영적 갱신을 이룰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거부한 결과 이제 멸망과 포로 생활의 어둠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야는 사라져버릴 에브라임(이스라엘)의 영광과 심판받을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멸망과 헛된 힘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영적 형편 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상기시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란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란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

기의 깃대 같겠고 영 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30:15-18)

함께 살펴보기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어라고 부르십니까(1절 상반절)?
2.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에 죄를 더했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1-2절)?
3.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힘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3-5절)?

4.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었습니까(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계획하고 행한 일들 중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했으며,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3. 급한 김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2 과

후히 드리는 생활

찬송 / 71장

암송할 말씀 / 고후 9:7

목 상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 최근의 나의 헌금 드리는 생활은 어떠합니까?

2.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

3. 무엇을 정한 대로 해야 합니까?

4. 나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5. "그 마음에 정한 대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

6.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 들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7. 헌금은 억지로 드리지 말라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억지로 드리는

경우입니까?

영광교회 10월 1주 금요일

또 억지라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9.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고후9:8)?

10. 즐겨낸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요 1:41)?

11. 헌금을 즐겨 드렸을 때, 자신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또 가장 기본적인 헌금인 십일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적 용

13. 헌금 생활이 바르지 못할 경우,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서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